

16세기 종교개혁과 재세례파 운동

— 정치와 종교의 분리주의개념 —

金 琪 達

(영남신학교 교수)

제 1 장 서 론

(1) 종교개혁 473주년

이 글은 영남신학교 총학생회가 종교개혁 47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서 행한 특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즉 1990년 10월 31일은 16세기 종교개혁이 마틴·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된지 473년째가 되는 것이다.

벧후 3:8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였거니와 잠시 우리가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회의 역사를 “천년이 하루”라는 단위로 계산해 보면 구약 4천년은 4일에 해당되고 신약 2천년은 이틀에 해당되니 도합 6일이 곧 기록된 신구약의 역사라고 말해볼 수 있다. 물론 수백억년을 헤아리는 천문학상의 지구의 연령이나 고고학의 계산단위는 제쳐놓고라도 인간의 기록된 역사의 길이는 사실상 육천년을 크게 넘어 갈 것도 없는 것이다. 옛날의 애굽과 바벨론 문명이나 로마와 헬라와 앗시리아와 히타이트와 고대 히브리문명도 주전 4천년을 넘어갈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의 넓은 공간(Space)의 하필이면 이 지구촌에 위치 하였고 무한한 시간(Time)의 연속 가운데서 6천년 내외의 기록된 역사 속에 한정돼 있음이 신기하고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의 영원한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지구이외의 천체, 예컨대 화성이나 목성이나에 우주인이 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의 재림을 전후한 천년간의 시대를 말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논해지기도 하나 인류의 발생과 본질과 최종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그야말로 우주의 고아처럼 횡설수설하는 철학자들의 논리에 맡겨졌을 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외에는 정설이 없이 떠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간의 이러한 운명을 결정적으로 포착하고 확실한 해석과 원리를 주면서 역사와 인생과 세계와 자연의 발생과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요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전능하고 자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창 1:26) 인간은 창조되어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배할 권리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인간의 조상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오염되고 인간의 전 자손은 죄악세상에서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약 4천년 간에 걸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유대민족을 자기의 특별한 선민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이 땅 위에 구원의 소망을 현실화 하였다. 구약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죄용서함을 받아 멸망에서 구제함을 받게 되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건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와 신앙의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로 채워진다.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탄생과 성장과 그의 교훈과 권위와 이적과 기사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설립 등은 신화가 아니라 인간역사와 인간사회와 인간가족의 한 가운데서 참된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으로서 인간의 생활을 어두움에서 광명한 빛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교회발생후 근 천오백년 후에 발생하였고 오늘 이 시대는 종교개혁(1517) 발생 후 근 오백년 후에 해당되지만 성경의 진리는 빛이 나고 찬란하게 어두운 세상과 인간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종교개혁사건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루터라는 한 독일인 젊은 신부가 윌텐버그대학 정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오백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잃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재발견하고 기독교회의 본질과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원형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 기독교의 재발견

흔히 기독교를 유대교와 회교와 함께 계시종교의 하나라고 칭한다. 불교와 인도교와 바라몬교가 자연종교요 철학적 명상과 자기 수양의 자력구원의 종교라 하는 것과는 구별하여 계시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타력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라 한다. 그런데 유대교는 「여호와」 유일신만을 믿고 회교는 선지자 마호멧을 통하여(630 A.D.) 발견한 유일신을 「알라」신이라 부르며 계시종교의 새로운 종파를 아랍인들(즉 이스마엘의 자손) 사이에 형성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신약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오순절에 강림하여 기독교회를 형성하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일체되는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기독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한 영혼들의 구원과 복음의 여러 민족에의 전파와 교회의 확장의 역사이기도 하고(선교사) 교리의 발달(교리사)의 역사이고 또 정치적으로 교회의 조직과 감독의 역사(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긴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진하고 교회가 확장되기도 하였으나 세속권세와 싸우고 이단과 이방종교와의 대결에서 자체를 세련되고 정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세속화하고 자아의 본질을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본래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보존하여 왔다고 할 수가 있다. 중국에서 당나라시대에 2백 여년간 왕성하였던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종파인 경교는 소멸하여 없어졌고 카톨릭교회가 중세기 동안에 크게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세속화 하고 인간화 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마틴·루터라는 영혼을 통하여 16 세기에 종교개혁 사건을 폭발하게 하여 기독교회의 원형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여 카톨릭교회자체의 대반성(반종교개혁)을 촉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드높히고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한 신관과 하나님 앞에 만인이 죄인이요 평등하다는 원리를 깨닫고 근세시대에 세계가 하나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전 인류의 구원과 해방을 지향하게 하였음은 기독교회의 큰 성과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역사 종말에 있어서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양심을 따라 반성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할찌라도 그 양심을 주신 주인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배가 없이는 인류는 자기 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과격한 종파의 하나로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양측으

로부터 혹심한 박해를 받고도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순교를 당하며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구라파를 떠나 신대륙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전세계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대원리를 주었던 단체가 있었다. 그 과격하고 작은 종파는 재세례파(Anabaptists)들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약 오백년전의 종교개혁과 그 발전을 논하고 재세례파의 활동을 조명하고 기독교회의 재발전과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본질적인 관계를 규명하기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16세기 종교개혁의 개관

16세기 마틴·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전체 교회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우주적인 의미를 주는 사건이었다. 중세기적 시대의 종말이요 근세시대의 시작이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보다 25년 전인 1492년에는 크리스토퍼·컬럼브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었다. 어떤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으로 풀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독교회 역사의 상고시대 즉 6세기까지를 하천문화(河川文化)의 시대라 하였고 중세시대인 15세기까지를 지중해와 발트해 등의 내해문화(內海文化)의 시대라 하였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근세시대를 대양문화(大洋文化)의 시대라 하였다. 근세시대에는 오대양 육대주를 연결하여 지구촌을 완전히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복음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시대인 것이다. 신대륙의 발견과 종교개혁의 구라파 예서의 폭발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대륙에의 이주와 미합중국의 탄생과 개신교 세계 선교운동과 극동과 제3세계와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 등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 발전으로 이 시대를 특징지었다.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기 동안에 라틴민족에게서 기독교로 개종을 받은 서구라파의 튜튼민족들의 라틴민족에 대한 정치적 및 종교적 도발사건

이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중세기의 법왕 중심적 체제를 붕괴하고 민족국가와 개인의 독립과 해방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중세말기에 일기 시작한 민족국가들의 봉기와 문예부흥과 계몽사조의 철학에 힘입은 인간의 발견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만연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바탕이 마련되고 또 촉진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잃어 버렸던 기독교의 원시적 본질과 교리와 신조와 조직을 성경에 입각하여 재발견 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의 뒷바침을 받는 스콜라신학을 발전시켜 공로의 신학을 신봉하며 면죄부 판매라는 극히 미신적이고 부도덕적인 착취행위를 행하고 있었을 때 마틴·루터의 양심은 분연히 일어나서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당시 독일의 제후들 간에 만연해 있던 독일민족주의적 의식의 보호가 없었다라면 루터의 의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몇 가지의 특색있는 그룹의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의 양상을 살펴 봄이 편리할 것이다.

(1) 마틴·루터의 개혁운동

마틴·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삭센선제후의 영토인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강건한 광부였고 어머니는 신앙심 두터운 부인이었다.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그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서 루터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보내져서 공부를 하였다. 18세 때 엘푸르트 대학에 들어갔고 1505년 마지스털의 학위를 따고 학업의 성적이 우수하였다. 여기서 나아가서 법학을 수업하려 하였을 때에 돌연 대학을 떠나서 어거스틴 교단의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 원인을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한 사람의 친구가 급사한 사건이 그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전해진다. 루터는 영혼의

구원문제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갔으나 그 후에도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보다 앞서 루터는 엘푸르트 대학의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의혹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광명을 바울서신의 로마서 1:17에서 발견하였다.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는 어거스틴파 수도원 원장 슈타우피츠(Staupitz)의 도움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한다. 슈타우피츠는 당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이해한 인물이었다. 루터는 길고 고통스러운 종교적 경험을 하고, 믿음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오직 준엄한 하나님으로만 보는 중세의 신앙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¹⁾

1517년 대감독 알베르트의 비굴한 대행인 텃젤은 윗텐버그 부근의 유우테르버그에서 면죄부의 판매를 개시하였다. 텃젤은 면죄부를 매입한 사람은 회개가 필요치 않다. 면죄부는 완전한 용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그 95개조를 윗텐버그 대학의 정문에 게시하였다. 이 조문 안에서 그는 면죄부 제도의 악용을 배척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려면 누구든지 오라고 도전하였다. 루터의 이 도전장에 도전자는 없었고 루터의 개혁사상은 두 주간내에 전 독일에 퍼지고 4주간내에 전 구라파에 전해졌다 한다.

루터는 1520년 세 가지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논쟁점을 독일 백성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 첫째 논문은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말씀”이었다. 여기에서 루터는 성직계급을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의 원리를 드높혔다. 두번째 논문은 “바벨론 포수”였다. 여기서는 로마의 예전 제도를 공격하고 성찬식과 세례만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이신득의의 원리를 드높혔다. 셋째

1) 柏井 園: 기독교사 p. 335.

논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였다. 여기서는 로마교회의 신학을 공격하였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결과로써 자기가 사제라는 주장에 의해서 신자개위제사의 원리를 주장하였다.²⁾ 루터는 로마교회의 성직제도와 예전제도와 신학을 공격하고 민족적인 종교개혁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소위 루터의 종교개혁의 삼대원리는 1) 성경의 권위의 원리 2) 이신득의의 원리 3) 신자개위제사의 원리 등으로 요약이 된다.

독일황제 칼 5세는 1521년 봄 뤼스에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루터가 출두하여 자기의 견해를 위해 응답해야 할 것을 명하였다. 루터는 후리드리히, 기타의 독일 군후들의 보호확약을 받고 뤼스에 갔다. 루터는 의회에서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의 주장이 “성경의 증명” 혹은 이성에 의해서 잘못 되었음을 확증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주여 내가 여기 섰으니 도우소서 아멘”이라 말하였다. 의회에서 물러나 돌아가는 루터를 그를 우려하는 한 무리가 납치하여 와르테부르그성으로 연행 은신하게 하였다. 이곳에서 루터는 성경전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국민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1534년까지 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수도사의 서약에 대하여”를 저술하여 수도사와 수녀에게 잘못된 서약을 버리고 수도원을 나와서 결혼하도록 권하였다. 루터는 1525년 탈출한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두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였다.³⁾

(2) 존·칼빈의 개혁운동

존·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피칼디현의 노아른마을에서

2) 케언즈, 김기달 역 : 서양기독교사 p. 429

3) 윌콕 : p. 433.

태어났다. 파리 동북방 70리에 위치한다. 대체로 피칼디인은 독립심과 의열정신이 많고 집착력이 강하여 유명하였다. 칼빈의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그 땅의 감독의 서기로 근무하여 존경을 받았다. 어머니는 미모의 경건한 부인이었다. 아버지는 아들 칼빈을 신학예비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14세 때에 파리로 유학을 보내었다. 그곳에서 졸업할 무렵 아버지는 감독과 다투는 일이 있어 직장을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칼빈을 법률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1528년 오르래앙의 법률학교에 입학시켰다. 1531년 봄 칼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였음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

아버지의 별세 후에 칼빈의 좋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파리로 가서 인문학자의 강연을 듣고 널리 고금의 문학에 통하게 되었다. 23세 때 세네카의 관용론의 주해를 쓰고 그 실력을 과시하였다. 칼빈은 벌써 불말(Wolmar)로부터 개혁사상이 고취되어 그후 그를 가르친 교사와 친척들에게도 프로테스탄트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칼빈이 개신교로 개종한 때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홀연히 회심한 것은 명백하다. 칼빈은 시편의 주해서의 서문에서 자기의 경험의 일단을 기록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충실하게 법률학에 정신을 기울였으나 하나님은 비밀의 섭리에 의해 다른 길로 나의 방향을 돌려 놓았다. 먼저 법왕교의 미신에 고착하여 깊은 흙탕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해서 연령에 비하여 완고한 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⁴⁾

칼빈의 생애는 이것을 두개의 커다란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536년까지 그는 편력하는 학도였다. 1536년부터 1564년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를 통하여, 1538년부터 1541년까지의 3년 동안 슈트라스버그에 추

4) 柏井 園：기독교사 p. 359.

방되어 있었던 기간을 제하고는 칼빈은 제네바의 유력한 시민이었다. 1529년에 칼빈은 부우주대학에 전입하였다. 1532년 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의 우수한 주해를 완료하였으나 이것은 휴머니즘이 그의 생애에 준 감화의 결실이였다.

1534년 그는 프랑스 퇴거가 불가피 하게 되어 스위스의 바젤로 갔다. 바젤에서 그의 최대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를 1536년 봄 26세의 젊은 나이로 완성하였다. 칼빈의 이 최초의 저술은 변호적인 것인데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를 기술한 것이다. 루터의 신앙문답의 영향은 이 제1판의 순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칼빈은 먼저 십계명을 논하고 사도신경에 근거하여 신앙을 논하고 다음에는 주의 기도예에 근거하여 기도예를 논하고 두 가지 예전 세례와 성찬을 논하고, 성찬에 대한 로마의 견해의 오류를 논하고 그리고 최후에 시민의 신자로서의 자유를 논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자유도 논하였다.⁵⁾

칼빈의 신학은 종교개혁자 마틴·루터의 사상을 이어 받은 것으로서 휴머니스트요 제2세 개혁자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신학을 흔히 다섯 가지의 원리로 표현한다. 그 주요한 특징을 표시하는 말의 최초의 글자를 철하면 튜리프(tulip)가 된다. 칼빈의 신학의 주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상권이다.

첫째, 그는 모든 인간의 전적타락(total depravity)을 믿었다. 인간은 아담을 통하여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었으므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둘째,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을 믿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기초를 둔 것이며 어떤 자는 구원으로 다른 자는 멸망으로 예정되었다.

5) 케언즈 : 서양기독교사 p. 457

셋째, 제한속죄(limited atonement)의 교리이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업적은 구원에 선택된 사람들 만을 위해 이룩되었다고 믿었다.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선택된 자는 성령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리스도어로 이끌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희망과는 관계 없이 구원 받는 것이다.

다섯째, 성도의 인내(perseverance of the saints)가 칼빈의 체계의 최후의 중요한 점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구원된 이 선택된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로 결코 최후적으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⁶⁾

칼빈의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신학에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신학체계는 성 어거스틴에 힘입은 것이 아니고 그의 성서연구에 힘입은 것이다.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1517) 칼빈은 8세였다. 1540년 그는 어떤 재세례파 목사의 과부 이도렛드 도 뷰올과 결혼했다. 그들의 외아들은 어릴 때 죽었다.

루터에 비하여 개신교 세계에서 칼빈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도 성직에 임한 적이 없는 때마른 온건한 학자이며 우수한 설교자였던 칼빈이 현대사회의 영적발달에 주었던 영향이란 것은 그의 너무나 약한 육체와는 조화가 안된다. 실로 그는 국제적인 종교개혁자였다.⁷⁾

(3) 카톨릭의 반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많은 후퇴를 강요당한 로마카톨릭교회는 교황 바울3세 때부터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격을 가할 뿐 아니라 신

6) 원책 : p. 458

7) 원책 : p. 462

앙적인 부흥과 교회생활의 개혁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프로테스탄트에 대결하는 로마교회의 독특한 교리를 제정하는 등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부흥의 원인은 여러가지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부흥에서 자극받은 내부적 각성, 스페인의 이사벨라(Isabella)와 카디날 키메네스(Ximenes)의 부흥운동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의 제수잇(Jesuit)교단의 활동이었다.⁸⁾ 이 운동을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라 부른다.

이그나티우스·로올라는 서반아의 귀족의 가정에서 1491년에 태어났다. 소년 때부터 무사의 교육을 받고, 전쟁터에서 왼발에 중상을 입고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다. 그는 병상에서 성자의 전기를 읽고 여생을 성모에게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여러나라를 순방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37세의 나이로 파리대학에서 7년간을 수학하였다.

이 무렵 로올라는 6명의 동지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야소교사(Society of Jesus)라 명하였다. 야소교사의 조직은 군대조직과 비슷하게 절대복종의 의무를 지우고 금욕적 고행과 노동을 하며 신학을 연구하고 사원된 자는 복종 빈곤 독신의 서약을 요구하였다. 야소교사는 교육사업에 정진하여 1550년 로올라는 로마에 학교를 일으켜 사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일반인들 보다도 오히려 상류사회의 사람을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야소교사의 학교는 수백년간 구라파의 교육계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외국전도사업에 있어서 야소교사가 이룬 바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 때에 개신교회는 개신교자체의 존립투쟁에 전념하기 때문에 해외선교의 겨를이 없었다. 이 시대에 해외에 영토를 가진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8) 이영현 : 교회의 발자취, p. 161.

9) 柏井 園 : 기독교사 p. 386.

등의 카톨릭국이었고 영국, 화란 등의 개신교국은 해상진출을 못하고 있었다.

야소교사가 파견한 선교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후란시스코·사비엘(Francisco Xavier)였다. 그는 1506년 스페인의 사베료에서 태어나서 파리대학에 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철학 등을 교수하였으나 로올라와 함께 야소교사의 일원이 되었다. 사비엘은 동양전도의 길에 올라 1541년 4월 리스본을 떠나 인도로 향하였다. 사비엘은 1549년 8월 일본에 도착하여 전도를 시작하여 2년 동안에 큰 성과를 올렸다. 그는 중국대륙에 전도할 목적으로 중국남부에 도착하였으나 1552년 12월 2일 병사하였다.¹⁰⁾ 사비엘의 일본전도는 기독교의 동양전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개혁시대의 로마카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 운동은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의 남미의 카톨릭국가 내에서 발생하여 교회의 반성과 카톨릭교리의 재확인 및 교육사업의 진흥과 도덕주의의 재건과 해외 선교운동과 수도원의 경건과 기도운동 등으로 교회를 부흥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신교회의 개혁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반동적인 운동에 불과하였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알프스산 이북의 튜튼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4) 문예부흥과 인문주의 운동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은 구라파 역사의 중세로부터 근세에 옮기는 사이에 일어난 두 가지의 큰 활동이다. 종교개혁은 문예부흥의 토양에서 자라났다고도 한다. 문예부흥은 단순한 학문과 문예의 부흥 보다도 넓은 의미를 가진다. 중세기를 지배하던 세계관과 인생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변화의 시대를 칭하는 것이다.

10) 硯책 : p. 388.

그 특징의 주요한 것을 들자면 권위에 반항해서 도리의 비평을 주요시 하는 것도 그 한 가지이고, 개인주의의 세력이 왕성해진 것도 그 한 가지이며, 자연의미를 즐기고 자연의 능력을 발휘하고 현세 생활의 행복을 향락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그 한 가지이다. 이것들은 단체적 타계적 금욕적인 중세기의 이상에 대한 휴머니즘의 반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먼저 회랍과 라틴의 고문학부흥의 형태로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의 사업이 강인한 독일인의 손으로 시작된 것과 같이 문예부흥의 주동자의 역할은 이태리인의 천재적 자질에 적합하였다. 독일에 있어서의 문예부흥운동의 양상을 보게 되면 중세 후기에 신학문의 부흥을 대학들의 설립에서 볼 수가 있다. 15세기에 독일의 제후 부호들이 서로 다투어 대학을 설립하고 150년 사이에 17개의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었다. 보헤미아의 푸라그대학은 1348년에 비엔나대학은 1365년에, 하이델버그 대학은 1386년에 쾰른대학은 1388년에 설립되었고, 윗텐버그, 말부르그 대학 등은 16세기에 설립되었다.

이 시대의 구라파 일반에 있어서 신학문을 대표하는 학자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였다.¹¹⁾ 화란의 룩텔담에서 태어나고, 파리에서 신학을 수학하였고 1498년 영국에 가서 존·콜렛과 토마스·모어 등과 신학문을 연구하고 후에 스위스의 바젤에 거하며 저작에 종사하였다. 그의 명성은 한 때 전 구라파에 퍼졌고 그의 활동은 풍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의 주장을 가졌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교훈이 아니고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실현된 사랑, 겸손, 순결 등이 그것이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도덕적 혁신을 하여 그리스도의 종교에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처음에는 의견을 함께 하였으나 루터의 개혁을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11) 윗책 : p. 320.

생각하고 관계를 끊고 카톨릭교회에서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종교개혁이 히브리적이요 계시사상적이요 초자연적이요 종교적인 운동이요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문예부흥(Renaissance)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헬라적 라틴적이요 이성적이요 자연적이고 학문적인 운동이요 인간발견과 현세적 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다른 근원에서 다른 분야를 지향하였으나 서로 관계를 끊을 수 없이 나란히 시대를 이끌어 가는 운동이 되었던 것이다.

(5) 과격주의파와 재세례파운동

종교개혁의 여파와 부산물로 이색적인 종파들이 파생했다. 재세례파와 신비적인 신령파 그리고 반 삼위일체론자들이다. 신비적 말세적 범신론적 사회 혁명적, 14.5세기 스콜라신학에 대한 비판사상, 르네상스 루터 쾰링의 개혁 사상들이 서로 작용하여 이러한 종파들이 형성되었다. 많은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특히 로마교회와 아울러 복음주의 개혁교회의 일부 요소를 배격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점들도 가지고 있는데 반삼위일체론자들은 성경을 범신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세례파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에 대하여 신령파는 내적 빛(inner light)에 종속시키고 재세례파는 절대적으로 율법화하고 있었다.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을 일으킨던 당시 1520년대에 성경을 통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하며 말세신앙을 강조하며 극단적 개혁운동을 주장하던 자들이 있었다.

토마스·문쩌(Thomas Münzer)가 그 대표자이다. 쾰링에서 선동하다가 보헤미아 할레 튜링기아의 알스타드, 몰하우젠, 남독일과 스위스 경계지방에서 그후 농민전쟁 때(1525) 다시 중부 독일에 와서 폭동을

지휘하다가 푸랑켄하우젠에서 잡혀 물하우젠에서 참형되었다.¹²⁾ 1525년 5월 27일 독일 서남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는 구교와 신교의 귀족들이 제각기 기뻐하고 있었다. 삭소니와 튜링기아지방의 봉건제후들의 간장을 서늘케 했던 혁명가 토마스·문짜가 반역죄로 교수형을 당했기 때문이다. 봉건영주들은 농민들이 반란을 다시금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혁명 기승을 꺾으라고 문짜의 목을 베어 거리의 광장에 있는 기둥에 매달아 놓았다. 그의 신학의 최후적 표현은 사회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 그 자체라고 생각된다. 그의 사상에는 신비적이고 묵시적이며 종말적인 요소들이 스며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¹³⁾

미카엘·세르베투스(Michael Serveto)는 서반아인이었다. 급격한 자유주의 사상을 품고 20여세경 「3·1 신론의 오류」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1540년부터 1553년까지 비엔나에 거주하였다. 1553년 「기독교의 만회」라는 저술을 하고 나케야회의에서 결정한 3·1신론과 칼케돈회의의 기독교론과 유아세례와 이들 세 가지는 교회부패의 대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칼빈과 편지교제를 한적이 있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 사상은 삼위일체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이단으로서 사형을 주장하였다. 세르베투스는 1553년 10월 27일 화형에 처해졌다.(칼빈은 이보다 관대한 처형방법을 권고하였다)¹⁴⁾

종교개혁시대에 있었던 종파들 가운데 과격한 종파에 속하는 재세례파(Anabaptists)도 로마카톨릭교회와 개신교주류파들의 양쪽의 박해를 받았던 무리였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의 재세례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세례파라 칭하였다. 오늘의 침례교회의 근원과 다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그들의 원래의 흐름은 중세기를 소급하여 초

12) 이영헌: 교회의 발자취, p. 149.

13) 홍치모: 종교개혁사 p. 106.

14) 柏井 園: 기독교사 p. 366.

대교회에까지 거슬러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집념깊게 주장하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혹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 그들의 주장 때문에 역사적인 의의를 주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고 세속권세로부터의 교회의 절대적인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재세례파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과 자극을 받은 바가 실로 많으나 루터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선배는 종교개혁 전부터 독일과 화관을 위시하여 이태리와 프랑스에까지 산재한 신앙적 소단체였던 것이다. 저들은 중세교회의 조직과 의식의 번잡함을 싫어하고 교회의 제례에 반대하고 예배에는 일상의 자국어 사용을 주장하며 개인가정에 회집하여 기도회 형식으로 신앙서를 독습하였다.¹⁵⁾

제 3 장 재세례파운동과 그 미국에서의 영향

(1) 재세례파의 특징

재세례파운동은 좌파의 과격주의 운동이라 간주할 만큼 복음주의운동이나 카톨릭운동이나 인문주의 운동과는 현저한 특징을 나타내는 소단체였다. 그들의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하자면 :

첫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원칙을 믿었다. 둘째, 성서의 독자적인 해석을 주장하였다. 셋째, 절대적인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 내지는 전쟁 반대주의자들이었다. 넷째, 신자의 세례를 주장하였다.

교회는 성만찬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 세례 받은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며 유일한 무기는 출교(Excommunication)이다. 모든 육체적 소속을 반대하였으니 곧 카톨릭 루터파 그리고

15) 송낙원 : 기독교회사 p. 329.

쓰빙글리과 등의 예배 참석을 금하였다. 각 교회는 그들의 교직자를 선택하여 지도 받을 것이었다. 정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필요하나 신자는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무력이나 강제를 써도 안된다. 이것들은 후에 침례교회, 회중교회, 퀘이커 등의 각이한 여러 교파들의 대표적인 이념이 되었으며 영국교회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일부는 일부다처제를 행하였으며, 원시 교회시대의 이념을 따라 기독교 공산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생활을 실천하였다. 루터와 함께 개혁운동을 하였던 칼슈타트는 루터와 쓰빙글리를 반(半)개혁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취리히에서 가장 과격한 혁신자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그레벨(Conrad Grebel)과 만즈(Felix Manz)였다. 그들은 쓰빙글리(Zwingli)의 성서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여 1523년 10월에 제2차 변론회에서 성상(聖像)과 미사를 즉각 없애도록 요구하였다.¹⁶⁾

거기에 참석하였던 가장 유능한 사람은 한때 루터의 적수였던 엑크의 제자였고 동지며 친구였으나 이제는 스위스의 북경지방 발트서트에서 설교자로 있던 휴브마이어(Balthasar Hubmaier 1480-1528)였다. 그는 1522년에 루터의 저서에 의하여 복음주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유아세례를 의심하게 되어 쓰빙글리와 토론하였다. 그의 비평은 유아세례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1524년에 이르러 그레벨과 만즈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데 1525년 초에야 행동을 함께 하였다. 그들 일파는 1525년 1월 21일 밤에 아마도 만즈의 집에 회집하여 논의한 끝에 블라우록(George Blaurock)이 일어서서 그레벨에게 세례를 청하자 그레벨이 옹한 다음 블라우록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처음에는 머리에 물을 뿌리다가 얼마 후에는 침례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별도로 성찬식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반대자들에게서 “재세례교도”(Anabaptists)

16) 윌리스턴·워커: 세계기독교회사 p. 278.

라는 별명을 얻었다.

쾨리히 현청은 재세례파들의 신앙에 대한 끔찍한 흉내로서 그들을 역사시키도록 1527년 3월에 명령하여 만즈는 순교를 당하였고 그레벨은 조금 전에 열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만즈와 같은 운명에서 모면하였다. 그레벨과 그의 동료들이 쾨빙글리와 상이한 점은 무엇보다도 신앙문제에 대한 무력행사였다. 그들은 쾨빙글리가 쾨리히에 이룩한 국가교회(state church)에 합세하기를 거부하였고, 종교개혁의 다른 중심지를 세우고 싶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만의 자유공동체를 세우고자 처음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실천하였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박해의 주원인이 되었고 그들의 종파심은 교회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었다.

독일에서 그들의 중심지는 아우그스부르크였다. 여기에서 휴브마이어는 1526년 5월에 댕크(Hans Denck, 1495-1527)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는 차례로 후트(Hans Hut)에게 세례를 주었다. 댕크는 바젤로 갔다가 거기에서 역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으니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뉴른베르크에 있는 유명한 성 제발트(St. Sebald) 학교의 학장이었다. 그는 죽기 전 크리스천의 모든 가시적 조직을 부정하였고 그의 신앙은 성경보다도 우월한 “내적 빛”(inner light)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고한 사랑의 빛을 보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에 나타난 그의 사상은 기독교적 플라톤주의 및 신비주의 그리고 특히 “독일 신학”(German Theology) 등에 의하여 양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¹⁷⁾

(2) 정교분리의 원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념은 분명히 근세시대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17) 뢰책 : p. 280.

있다. 특히 재세례파운동의 핵심적인 주장으로서 주목이 된다. 재세례파 운동자들이 그토록 혹심하게 로마교회와 개신교 복음주의적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원인도 사실은 그들의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정치와 종교 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논쟁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중세기를 통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회 안 밖에서 열심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영원히 계속 될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논쟁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적이 있다(마 22:21). 그리고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라고 한 적이 있다. 예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정통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마 1:1). 그러나 로마제국 치하에서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으니 왕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가 고발을 당하고 죽은 것은 자기가 세상 유대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서 고발이 되고 로마법으로는 그러한 죄목도 없고 따라서 무죄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였다. 여기에 예수의 개념으로는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메시아) 즉 종교적인 왕 개념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어느 종족의 역사에서나 종교적 전통과 정치적 전통은 다른 것이다. 종교는 영적인 존재 또는 하늘에 대한 봉사인 것이고 정치는 이 세상과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사와 정치는 엄연히 기능이 다르고 또 전통이 다르고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제사와 정치는 구별은 하면서도 인간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늘 물체의 양면처럼 연합하여 인간생활을 지배하여 왔던 것이다. 인간의 형성자체를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할 때도

있으나 실제의 인간생활은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인격을 이루고 종합적인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정일치와 제정분리는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재세례파 신도들이 특별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였을 때 로마교회와 개신교 복음주의자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인 “자유교회”의 개념은 국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 즉 국가의 권세와 장차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권세의 본질을 구별하였고 따라서 이 양자의 혼합 내지는 동일시 또는 오염 당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매우 흥미 있는 근세시대의 한 가지 사건은 미국나라의 탄생과 함께 그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리를 명문으로 채택함으로써 재세례파들의 주장이 승리하였고 따라서 여타의 모든 종파들이 로마교회와 개신교회의 모든 종파를 설득시켜 「정교분리의 원리」를 수용하게 하였던 것이다.

기독교회의 2천년의 역사를 회고해 보건데 590년까지의 상고시대에는 로마황제의 국권으로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 공인(313)하였고 그리고 종교회의시대에는 황제가 종교회의를 지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세기(590-1517) 동안에는 이 정세가 역전되어 법왕이 황제들을 지배하면서 왕위를 승인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하면서 왕중왕의 권위를 휘두른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법왕의 권세는 쇠퇴하고 황제들은 해방과 독립을 얻고 교회와 국가는 바야흐로 대등한 세력으로 서로 견제하는 양상을 보이더니 청교도가 세운 미합중국에서는 명실공히 구라파와 구세계의 왕들과 법왕의 절대권한을 벗어버리고 백성의 나라를 실현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고 종교와 정치는 혼동하지 아니하고 기능을 분담하여, 투쟁하고 반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사람을 봉사하며 섬기며 한 국가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의 대변동에 힘입고 재세례

파들의 투철한 그 신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3) 평화주의

재세례파활동의 특징들이 여러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들의 평화주의적 주장과 세계를 향한 그들의 영향력을 잊어버릴 수 없다. 로마교회와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어떤면에서 투쟁하는 자였고 박해자였다면 재세례파교도들은 양편으로부터 오는 무자비한 박해를 순한 양과 같이 당하기만 하는 비참한 역사적 기록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적 생활철학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은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와 순교적인 정신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재세례파들이 역사에서 이단자적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살펴볼 때 그들에게 그럴만한 여러가지 복잡한 사연이 안으로 겹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이것을 홍치모 교수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¹⁸⁾

첫째, 재세례파들이 본래 스위스의 쾰링리의 동지들이요 추종자들이었다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재세례파들은 칼빈이나 루터의 계열에서 이탈한 분파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쾰링리와 교리논쟁에서 끝내 의견을 달리하여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면 재세례파들이 쾰링리와 의견을 달리하였던 주요사항(교리)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세 가지 조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가와 교회 ② 예배의식의 통일 ③ 유아세례문제 등이었다.

둘째로는 루터와 칼빈 이후 개혁운동의 계승자들은 앞서 개혁가들이 제정한 교리적 유산을 그대로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의 본분을

18) 홍치모 : 종교개혁사 p. 122.

완수하는 것으로 확신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졌던 선입관념이란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것이었으므로 재세례파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좀처럼 관용의 태도를 보일리가 만무하였다.

끝으로 셋째는 재세례파운동은 처음부터 신앙과 행위의 자유를 표방하고 출발하였으니만큼 성서를 지나치게 주관적 내지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풍조가 유행함으로써 하나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다수의 분파들이 출현함으로써 복수운동으로 진전하였다. 예를 들면, 1534년 천년왕국의 신정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수공업자들과 종말론적 광신자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문스터시의 반란은 곧 독일의 토마스·뮌쩌(Thomas Münzer)가 지도하는 농민반란과 그 역사적 성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상적 계보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정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친구교의 신학자들과 신자들은 재세례파를 성급하게 뮌쩌의 운동의 연장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세례파들이 불행하게도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패배하지 않고 그들의 숭고한 종교적 유산을 계승하여 온 재세례파들의 고귀한 정신(Ethos)을 재인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평화주의운동과 무저항주의운동에서 자극을 받아 기독교 자체 내에서 심각한 자아반성을 한 결과였다.¹⁹⁾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위 정통적 교회의 권위만을 자랑하던 신·구양교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교회도 일부 걸머져야 된다는 자책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자기들 자체내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고귀한 평화주의의 정신을 저들 재세례파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의식은 다시금 인간의 양심문제와 종교적 자유의 문제 그리고 국가가 교회에 가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성에 대하여 재

19) 윗책 : p. 124.

검토하게 되었다. 1925년에는 재세례파운동의 역사적 기원 4백주년을 기념하여 자축하는 의미에서 논문집을 발간하였거니와 그 후 1927년에는 미국에서 재세례파연구의 학술지가 간행됨으로써 이 운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금일에 이르고 있다.

(4) 일부다처제

재세례파는 종교개혁시대에 완전히 새로이 발생한 사상이나 단체가 아니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시대부터 속화를 경계하는 경향으로 시작된 운동에 원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단일형태가 아니고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지파들이 형성되어 중세기를 통하여 정통주의의 뒤안 길에서 지하수처럼 흘러 온 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은 세상의 사악함으로 인해 가능한 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별개의 공동체에서 살기 원하던 제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졌다. 몬타누스파(Montanists) 마르시온파(Marcionists)와 노바티우스파(Novatians)도 이 계통이었다. 여러 형태의 수도원제도도 이와 유사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²⁰⁾

재세례파의 사상과 풍속 가운데는 특수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그들을 박해하게 한 요소였을 것이 확실하다. 평화주의와 공산주의와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형성이 그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일부다처의 풍속이 있는 곳도 있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미국역사 상에서²¹⁾ 유타주에 정착한 Mormon교도들이 한 때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였고 이것이 원인으로 연방에 가입되는 것을 보류 당하였고 이것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합중국의 한 주로 수용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재세례파의 일부에서 일부다처제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20) 케니스·라트래트, 윤두혁 역 : 기독교사(중) p. 419.

21) 윌리엄 W. 스위트, 김기달 역 : 미국교회사 p. 347.

종교개혁시대에 독일 문스터는 감독후의 영토로서 백성들이 악정에 고통을 받았는데 버나드·로트만(Bernard Rothmann)이란 설교자가 있었는데 학식이 있고 웅변가였다. 민중에 대한 그의 동정이 두터운지라 점차 비상한 세력을 얻게 되었다. 감독은 로트만의 설교를 금하고 그들을 시외로 떠나게 하려 했으나 시민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로트만을 보호하려 하였다. 로트만은 처음부터 재세례파는 아니었으나 그 사상과 가까운 것이었다. 후에 재세례파가 되고 그 세력은 더욱 확대하였다. 문스터시의 회의는 재세례파 시민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은 축출을 당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감독의 군대가 시를 포위하고 재세례파 시민들은 용감하게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포위된 문스터시민은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일부다처제의 풍속을 시작하는 기현상을 나타내었다. 문스터시는 수개월 동안 포위당하여 양식이 떨어지고 내통하는 자가 있어 드디어 시가 함락되어 많은 사람이 살해 당하였다.²²⁾ 이것은 문스터 사건으로 알려지는데 재세례파가 관계된 사건이었다.

(5) 원시공산주의

재세례파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의 하나는 원시기독교주의(Christian Primitivism)였다. 소위 기독교의 초대교회인들이 가졌던 생활양식을 문자 그대로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사상이다. 그런데 일부 재세례파들은 그들이 지향하던 윤리적 규범생활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족장들 즉 아브라함(Abraham) 시대에까지 올라감으로써 도리어 신앙생활의 혼란을 초래시키는 결과를 자아냈다. 일부다처제도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원시기독교 내지 구약시대의 생활규범을 추구하

22) 柏井 園: 기독교사 p. 381.

였을까? 여기에는 현실생활을 부인하는 강력한 배타정신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 신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무조건 신성시 또는 절대적으로 이상화한데서 나타난 착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²³⁾

역사가들이 재세례파운동의 초기역사를 기술할 때 스위스의 재세례파에서가 아니라 서북부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뮌스터(Münster)시에서 발생하였던 반란운동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여 그것이 종말사상과 공산사상이 결합되어 구체화 되어진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뮌스터시에서 발생한 반란운동은 역사가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 구구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재세례파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이와 같은 급진적 종말사상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6) 반삼위일체적 경향

재세례파운동을 과격한 좌파운동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을 것이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주의, 극단적인 전쟁반대와 무저항주의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의 공산주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형성과 구약의 족장시대의 일부다처제의 모방과 축자적 성서해석주의와 임박한 종말론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삼위일체교리를 빗나간 반삼위일체적 경향의 무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의 몇 재세례파들은 반삼위일체의 사상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의 생각은 세르베투스의 글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삼위일체의 재세례파는 계속 증가하여 회중과 목사를 갖고 있었다.

1550년 그들은 베니스에서 공회를 열어 믿음의 신조를 작성하였다. 다른 것을 제외하고 중요한 것으로는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았고 선택된 자들은

23) 홍치모 : 종교개혁사 p. 128.

그리스도의 선행 죄 혹은 죽음으로 의로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의 합산을 보여주기 위해 죽었다는 것이다.²⁴⁾ 반삼위일체론(Anti-Trinitarians)적인 신앙은 종교개혁시대에 소시누스파에게서와 미국의 유리태리아(Unitarianism)주의와 오늘의 자유주의(Liberalism)적인 신앙형태와 연결되는 것이다.

(7) 종말사상

재세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종말적인 것이었다. 중세말 서구를 휩쓸었던 흑사병(Pest)처럼 유행되었던 말세사상이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늘 이시대에 한국교회와 사회를 현혹하는 종말론적 예언이 성행하여 1992년에 예수가 재림한다느니 1999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하여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9세기에 미국에서도 종말론적 재림설과 지구심판과 멸망설이 나돌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다.

종교개혁 당시의 재세례파 일부의 종말론과 재림사상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박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탈선한 신비주의 자들과 광신주의자들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묵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 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말사상은 처음부터 재세례파에서 유래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보다 앞서 남부 독일을 무대로 삼고 각지를 배회하면서 종말사상을 선포하고 다니던 쓰리카우의 예언자들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리하여 주로 무지한 농민들로부터 많은 공명을 얻게 되었거니와 이것이 조만간 재세례파에 속한 신자들의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확대해 갔던 것이다.²⁵⁾

24) 케니스·라토래트, 윤두혁 역 : 기독교사(중) p. 426.

25) 홍치모 : 종교개혁사 p. 129.

(8) 성서의 권위

재세례파의 성서의 권위에 대한 신앙은 매우 특수하였음이 그 문자주의 (Literalism)적 해석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R.H. Bainton 교수는 재세례파들의 신조와 행동의 특징이 윤리적이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루터파 교회에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문제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임을 재확인해 놓고 신자들의 일상생활의 행동원리를 미처 제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재세례파들은 신자 개개인의 구극적 생활목표가 완전성화(Sanctification)에 있으며 그것이 이 지상생활에서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중요시한 것은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이었다고 이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참다운 신앙의 내적 확증을 가진 자로만 구성된 소위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설립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각이라는 내적 경험이 없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유아세례는 항상 형식 뿐이고 오히려 거룩한 신도의 단체를 파괴하는 요소를 교회 자체가 배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단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²⁶⁾

재세례파의 신앙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상세하게 정한바가 없고 여러가지 다른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대체적인 정신은 초대 기독교자들의 신앙과 생활과 행위를 본 받음을 뜻하고 예배는 단순하였다. 무저항주의와 비전론은 매우 초기의 신도들의 주장이었고 후에 박해가 혹심하여졌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회는 신앙있고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거듭남은 각개인의 일로서 의식적인 신앙을 필요로 한다. 고로 그들은 소아의 세례를 반대한다. 그리고 교회의 성질이 이러한

26) 硯稿 : p. 127.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를 받고 혹은 국가가 제정한 규칙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구원에 관한 의견은 자력을 중시하고 율법주의에 기울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예정을 말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논한다. 그들은 로마교회를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루터교회와 칼빈파교회에도 합할 수가 없고 신구양측의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역경에 놓여졌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바가 있었기 때문이나 어떤점은 재세례파의 주장이 근본적이고 시대를 앞선 때문인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²⁷⁾

재세례파라 불리는 종교개혁의 과격파는 처음 쓰빙글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극좌파로서 발달하였다. 재세례파운동은 쥐리히로부터 스위스, 독일, 그리고 화란, 영국, 미국으로 두루 퍼졌다. 화란에서는 멘노·시몬즈의 지도하에 발달하였다. 영국의 침례교회의 기원 역시 재세례파와 관계되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지방에 멘노파의 자손이 금일에도 남아 있다. 영국의 브라운파 혹은 독립파는 화란에 있는 동안 재세례파에 접하여 그 이론에 찬성하여 귀국하였고 1612년부터 1614년 런던에서 한개의 침례교회가 설립되고 발달하여 오늘의 침례교란 교파를 형성하였다.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사상은 미국에서 여러 교파들에게 공감을 얻어 미국혁명(독립)과 더불어 건국된 합중국의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리를 도입하게 하였음은 토머스·제퍼슨과 로저·월리엄스목사 같은 정치적 종교적 선구자들의 공로에 힘입은 바 크다. 또 이것은 종교개혁시대에 박해를 심하게 받은 재세례파의 신념의 일부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7) 柏井 園 : 기독교사 p. 381.

제3장 결 론

(1) 재세례파의 성서적 근본주의

종교개혁의 복음주의적 지도자들이 성경의 권위의 원리를 개혁의 정신의 중요한 원리로 하였던 것 같이 재세례파들이 성경의 권위에 집착하였던 점에 있어서 카톨릭보다는 분명히 개신교 측에 기울어져 있었음은 확실하다. 다만 그들의 해석방법이 특이하였을 뿐이다. 재세례파들은 원시기독교주의자였다. 이것은 소위 기독교의 초대교회인들이 가졌던 생활양식을 문자 그대로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사상이었다. 여기에는 현실생활을 부정하는 강력한 배타정신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 신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무조건 신성시 또는 절대적으로 이상화한 데서 나타난 착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신자의 성화의 과정이 마치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생활과 똑같아야만 비로소 완전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무모한 환상 역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자주의(Literalism)에 기인한다. 탈선한 신비주의자들과 광신주의자들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많은 심혈을 쏟고 있었다. 그들의 종말사상과 공산주의적 유무상통주의나 무저항주의적 평화사상과 일부다처제와 정교분리주의 등의 사상도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근본주의적 성경해석 방법의 특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재세례파의 사상 가운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주의는 새로 탄생한 미국사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사회의 완성에 중대한 한 몫을 하였다고 보면서 본 논문은 결론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대의제도적 민주주의의 원칙은 장로교회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정교분

리는 재세례파의 후예인 침례교회에서 제공하였고 전체주의적 국교의 폐지와 종교관용의 정신은 자유주의와 이신론적 종교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역사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상고시대는 국권이 교회를 전체 하던 시대였고, 중세시대는 교권 즉 법왕이 국권 즉 속권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종교개혁시대는 교권과 국권이 서로 양립하여 견제하며 혼돈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근세시대에 개신교도들이 새운 신생 합중국에서는 깨끗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는 원칙에 합의하고 서로 투쟁하는 것을 지양하고 협력하여 한 국가사회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알렉시스 데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란 저서에서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정신과 자유의 정신이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음을 나는 거의 항상 보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들이 밀접하게 연합하여 동일 국가를 그들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나는 발견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²⁸⁾

그는 칼빈과 편지교제를 한적이 있었다.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사상은 삼위일체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이단으로서 사형을 주장하였다. 세르베투스는 1553년 10월 27일 화형에 처해졌다. (칼빈은 이보다 관대한 처형방법을 권고하였다)⁴⁾

(2) 세속주의 배경과 순교정신

재세례파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음 같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도들이 서구라파제국에서 받은 박해는 매우 컸었고 드디어 30년 전쟁(1618-1648)에서 그 극에 달하였다. 30년 전쟁은 처음에는 개신교도와 카톨릭 교도와의 종교전쟁이었으나 나중에는 외교전이요 이권쟁탈전이요 목적

28) 윌리엄 W. 스위트, 김기달 역 : 미국교회사 p. 8.

없는 살육전이 되었다. 어떤 기록에는 30년 전쟁 후에 구라파의 인구가 75프로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제세레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큰 요소는 그들의 세속주의 배경과 순교적인 투철한 정신이었다. 제세레파들은 잡혀서 세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억살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망명을 하기도 하였으나 무저항주의적 자세로 순교를 맞이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실로 많은 다양한 제세레파의 단체가 있고 그들의 신앙이 약간씩 달라서 이 차이가 문서로써 존재하는 궁극적 권위인 성서를 해석하는 권리가 신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서부터 생기므로 제세레파의 신앙을 조직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제세레파와 멘노파에게 공통된 약간의 교의가 있었다. 그들은 성서가 신앙과 실천의 궁극적이며 무오한 권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다수는 성서에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주었다. 그들의 다수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국가교회라는 것에는 전혀 무관하였다.²⁹⁾ 그러므로 약간의 무리는 전쟁반대론에 기울고 법정에서의 선서를 거부하고 시정의 직무에 취임하기를 거부하였다. 또 어떤이는 천년왕국설을 믿고 재산의 공유를 실행하고 또 어떤이는 신비주의에 기울어 내심의 영의 소리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여 많은 교파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무리인 제세레파의 주장은 특이하면서도 끈질긴면이 있어 그 미치는 영향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면이 있어 믿는이의 주목을 끌기도 하는 것이다.

29) 얼 E. 케언즈, 김기달 역 : 서양기독교사 p. 453.

[참고도서목록]

- ① 柏井 園 : 기독교사, 신교출판사, 1961, 동경
- ② G.L. 니이브 : 기독교 교리사, 대한기독교서회, 1965, 서울
- ③ 케니스, 래도래트 : 기독교사(중), 생명의 말씀사, 1980, 서울
윤 두 혁 역
- ④ 송낙원 : 세계기독교회사, 기독교 문화사, 1957, 서울
- ⑤ 윌리엄 W. 스위트 : 미국 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8, 서울
김 기 달 역
- ⑥ 이영헌 : 교회의 발자취, 총회교육부, 1979, 서울
- ⑦ 윌리스턴. 워커 : 세계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 서회, 1975, 서울
강 근 환 외역
- ⑧ 유형기 : 기독교사, 신생사, 1954, 서울
- ⑨ 장희근 : 한국 장로교회사, 마성출판사, 1970, 서울
- ⑩ 얼 E. 케언즈 : 서양기독교사, 보이스사, 1986, 서울
김 기 달 역
- ⑪ 홍치모 :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1977, 서울